

가브리엘 샤넬을 찾아가는 길 <3>

<1장> 가브리엘 샤넬의 묘는 왜, 스위스 로잔에 있을까? / 세 번째 이야기

글·그림·사진/ 김영일



스위스 로잔의 BEAU-RIVAGE-PALACE 호텔 다이닝룸.

로잔의 호텔에서는 단 하루밤만 묵기 때문에 오늘밤이 시작이자 마지막 밤이다. 로잔에서의 마지막 밤을 근사하게 지내기로 하고 호텔 옆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한국에선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식사를 주문했다. 푸아그라를 에피타이저로, 메인요리로는 양고기 스테이크다.

식사를 하던 중 한국인처럼 보이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혼자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주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의 '축'으로는 분명 한국사람이다. 이런 곳에서 마주치다니 신기하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일까? 그런 생각

을 하며 망설이다다가 인사를 건네며 물어보니 역시 내 촉대로드. 우리는 서로 신기한 인연을 기념하여 와인을 한잔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아동심리상담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가브리엘 샤넬의 묘를 보러 이곳에 왔고 샤넬에게 영향을 준 여러 곳의 장소를 여행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며 다녔지만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무척 신기해했다. 직업이 교수여서 시간이 나는 방학 때 세계 어느 한 도시를 정해 한 달씩 묵

는데 이번에는 이곳 스위스 로잔이라고 한다. 그녀는 나에게 가까운 곳에 '오드리 헵번'이 살던 데가 있다며 가보기를 추천했다. 그날 밤은 처음 만난 이와 온갖 수다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언젠가'라는 말로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호텔에 돌아와 룸에 있는 브로슈어를 보다가 의외의 정보를 발견했다. 가브리엘 샤넬이 로잔에서 살았던 호텔이 소개되어 있었다. 서울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정보였다. 내일 오후엔 이곳을 떠나야 하지만 몰랐던 것처럼 그냥 떠날 수도 없었다. 어쩌면 좋을까, 잠시 생각하다 일단 구글맵으로 위치를 검색해보니

샤넬도, 오드리 헵번도 반한 '스위스 로잔'

내가 묵고 있는 'Chateau d'Ouchy' 호텔에서 얻어 지면 코 당을 긁어냈다. 이걸 또 다른 도전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 겸 호텔로 향했다.

샤넬이 살았던 호텔은 규모가 상당히 큰 부지에 있어 걸어서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올림픽 뮤지엄 바로 앞에서 겨우겨우 찾은 출입구의 커다란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다시 담장을 따라 걸어 겨우 주차장 입구를 발견했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유럽의 최고급 호텔은 대부분 예약되어 있지 않으면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무진장 철저히. 한국인들에게 '팔레스'는 그냥 일반명사일 뿐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름에 팔레스라는 단어가 붙은 호텔은 말 그대로 궁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평범한 한국여자의 머리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BEAU-RIVAGE PALACE' 호텔을 지키고 있는 도어맨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려니 머리가 복잡했다.

내 상식으로 주출입구는 호수를 바라보는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있었고 그곳을 나처럼 걸어서 접근하는 투숙객은 없나보다. 호텔투숙객들이 해변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비상계단을 발견하고 결국 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수법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그렇게 어렵사리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냥 혼자서 어슬렁거릴 수는 없다. 일단 뭐라도 해야 했으므로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을 먹기로 했다. 물론 이런 호텔은 투숙객이 아니면 돈을 낸다고 해도 아침 식사 요청을 거절당한다. 그러나 어떻게 들어왔는데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가? 플로어 매니저에게 내가 호텔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니 잠깐 망설이다 웃으면서 레스토랑으로 안내를 해준다.

이런 기분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맛이다. 이런 식으로 어렵사리 내가 가브리엘 샤넬의 장소를 여

행하면서 얻은 성과는 그녀가 그 옛날, 비즈니스로 엄청난 성공을 했고 상류사회의 핵심으로 들어서서 생활했다는 것을 몸소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몇 년 전쯤 세계적인 패션그룹인 LVMH가 절세를 위해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려다 여론의 못매로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샤넬은 이미 수십 년 전 미국에서 들어오는 향수의 로열티를 스위스은행 계좌로 받아 절세한 비용으로 궁전 (BEAU-RIVAGE PALACE) 호텔에서 오랜 기간 살았다.

내가 회원으로 있는 '국제 존타클럽'은 전문직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오래된 국제봉사단체인데 이 단체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타인을 고용해야 '잘난 여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브리엘 샤넬은 유럽 역사에서 최초의 '진정한 잘난 여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녀가 패션비즈니스로 고용한 직원이 4000명이 넘는 때도 있었다고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던 무렵,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고용을 창출한 여성이 또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그녀가 멋지고 그녀가 좋다.



스위스 로잔의 BEAU-RIVAGE-PALACE 호텔 전경.

이주의 운세

<4월 16일 ~ 22일>

주(쥐띠) - 사, 표, 8성세 주어진 업무에 충실함이 좋을 듯. 사업에 욕심은 있으나 올해엔 시기상조. 내년 초에 사업수 있다. 고통 없는 성공은 없는 법. 한두 번 정도 실패도 따르겠다. 가정에 충실한 것도 사업 번창의 수단이 될 수. 준비를 철저히 하라.

묘(소띠) - 모, 자, 8성세 손재주 있을 듯. 지갑, 가방 조심하고 가급적 많은 돈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 5, 7, 10월생 사업가 지갑벌이 폭토로 변하는 격. 더욱더 분발하면

내년쯤 결실이 찾아올 듯. 문서관계 조심하고 구설 조심하라 친척과 갈등.

寅(범띠) - 손간의 선택이 심년을 좌우한다는 표어처럼 사, 초, 8성세 반평생 같이 살 인연을 쉽게 성급히 포기하면 후회할 수. 시기를 기다림이 좋을 듯. 2, 10, 11월생 등, 남쪽에서 새 귀인 찾아오니 근심걱정 사라지겠다. 서향으로는 가지 마라. 건강에 지장.

卯(토끼띠) - 부모 끌어 친구 사는 격. 5, 7, 12월생 많은 친구 두는 것 보다 한둘 정도 친형제처럼 친구를 둘이 어떨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지름길 일수도 있다. 초, 오, 8성세 바쁜 생활 속에서 마음의 불안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임을 알아라. 1, 4, 6월생 단념할 것.

辰(용띠) - 1, 7, 10월생 얼어붙은 마음은 눈이 녹기 시작하니

만사가 형통할 수. 사업 변동이나 이사수 있을 시기다. 애정의 방편으로 내수도 필요할 듯. 사, 오, 8성세 서, 남쪽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쏟아나니 가급적 가지마라. 건강에 더욱 조심.

巳(뱀띠) - 가, 바, 오, 8성세 중 2, 5, 9월생 용, 닭, 돼지띠와는 점점 멀어지는 격.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것. 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무용지물임을 알라. 미워만 말고 좀 더 관심 있게 대하여 챙겨주는 것이 어떨지. 신변에 위험 따를 수. 차 조심, 감기 조심함이 좋을 듯.

午(말띠) - 당신의 분위기를 바꿔라. 3, 7, 9월생 직장인은 부하직원을 하인 대하듯 하면 큰 코 다친다. 최대한 예의를 지킬 때 상사도 부하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듯. 애정에 지나친 무관심은 내일 조차도 잊어버리기 십상. 자중함이 좋을 수.

未(양띠) - 쉽게 이긴 자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중단의 소유자 될 수 있다. 2, 6, 10, 11월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성급함은 금물. 초, 바, 오, 8성세 현실에 더 많은 땀이 필요할 듯. 가슴을 열고 더욱더 노력함이 좋을 수. 미혼자 옛 애인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겠다.

申(원숭이띠) - 가, 사, 오, 8성세 일회용품만 사라는 이제 그만. 진실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4, 6, 9월생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있으면 건강을 해치니 낙천적으로 마음을 비워라. 사업가는 거래처의 가지치기가 필요할 듯. 쥐, 토끼, 돼지띠가 도움 주겠다.

酉(닭띠) - 2, 7, 9월생 문서관계 한 번 더 챙겨라. 확인을 했어도 뒷일이 우려되니 영수증은 반드시 챙김이 좋을 듯. 가, 테, 8성세 마음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으니 상대방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들 제구실을 못하니 서로 답답할 듯. 소, 뱀, 닭띠

의 길을 수립할 것.

戌(개띠) -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당신의 기를 펼 수 있을 듯. 3, 6, 8, 11월생 당신의 성공은 본인의 손아귀에 달린 것. 소신껏 결정하라. 가, 나, 바, 초성세 응달에 따뜻한 태양이 내려 앉았으면 마음의 고통에 새 귀인이 따르는 격. 토끼, 용, 양띠를 더욱 사랑할 것.

亥(돼지띠) - 가, 초, 8성세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으니 육체만 피로하구나. 뱀, 원숭이, 돼지띠에게 도움을 청하라. 1, 5, 8, 12월생 사업에 번창이 없다고 해 짜증부리면 본전도 못 찾을 수. 자녀에게까지 감정을 옮기면 좋지 않다. 변동하면 손해 봄.

☎ 제공 : 구삼철(02-959-8493, 010-5584-9393)

LED조명 현장맞춤 컨설팅 지엠디주식회사

www.dblightec.com www.samjin.co.kr www.sylbest.com/ko www.jamled.com www.finetechnix.com www.icepipeled.com www.partner-21.com www.5song.co.kr www.airtecsys.com

1. 가성비
: LED조명
품질비교분석

2. 최저가
: LED조명
가격비교분석

3. 현장 AS
1~5년 이상
: LED조명
사후관리
비교분석

LED조명 비교분석으로 동등이상 제품
최저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지엠디주식회사

컨설팅 : 032-578-5222 견적·발주 : 031-901-48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로24 웨스턴타워3 823호
전화 : 032-578-5222 / 031-901-4829 FAX : 031-919-4828
www.글로벌미.com E-mail : eofh9075@naver.com